

과기정통부 이전 호재는 없었다

내달 10일까지 세종으로 이전 전세수요 이주는 벌써 마무리

〈속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종으로 이전한다. 과잉공급으로 전세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세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전세가 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의 이전은 이제 시작됐지만 전세 수요 이주는 벌써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본보 7월 5일자 9면 등 보도〉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0.14%다.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시작한 지난 1월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세를 기록하다 이전이 마무리된 2월 중순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행정안전부 이전 때처럼 전세가가 회복할 것이라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다만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

까지 세종 아파트 전세가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다.

과기정통부의 이전이 본격화됐으나 사실상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가 더 이상 오를 기미가 없는 게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이전 때를 살피면 이전이 시작되기 전인 1월부터 행정안전부 소속 전세 수요가 대거 등장했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세종의 전세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주가 시작되자 전세 수요가 줄기 시작했고 이주가 시작된 2월부터 더 이상의 전세 수요 추가 유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과기정통부의 전세 수요 역시 이전이 본격화된 시점에선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게 확실적이다.

과기정통부 이전이 행정안전부 이전 때처럼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한 건 전세 수요의 규모 차이다. 행정안전부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이전 이후 적체된 물량이 상당해 과기정통부에서 발생한 전세 수요만으로는 전세가 회복이 어려웠다. 실제 행정안전부 이전한 2월

이후 세종의 입주 물량은 3월 713세대, 5월 1234세대, 6월 2456세대 등 4403세대나 된다. 행정안전부 이전부터 적체된 물량까지 상당한 걸 감안하면 과기정통부 이전만으로는 세종의 전세가 회복을 이끌어내는 게 당초 무리였던 의견이 나온다.

호재가 될 것으로 보였던 과기정통부 이전이 효과를 내지 못하며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 회복은 새 학기 이사철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달부터 좋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수요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달부터 쏟아질 입주 물량은 변수로 작용한다. 내달부터 10월까지 석 달 간 세종의 입주 물량은 3911세대다. 전세가 하락이 진행 중인 세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이전으로 잠깐 전세가 하락폭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게 끝이었다. 이전이 시작된 시점에서 전세 수요 유입이 더 늘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새 학기 이사철이나 돼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입주 물량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0303@ggilbo.com

분양가이드

대전 신흥SK뷰



대전 동구 랜드마크 SK뷰 분양 돌입

지하 3~지상 33층 1096세대 공급
미세먼지저감 특화설계 적용 예정
건본주택도 친환경소재로 선보여

대전 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흥 SK VIEW(신흥SK뷰)'가 26일 건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신흥SK뷰는 지하 3~지상 33층, 12개 동으로 구성되며 1588세대 중 1096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제공되는 전용면적은 59㎡ 582세대, 74㎡ 208세대, 84㎡ 306세대 등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149만 원이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흥SK뷰는 유주투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흥SK뷰 내부엔 예비 입주자를 위한 꼼꼼한 설계가 눈에 띈다. 우선 남향 위주 설계로 채광을 높여 주거 쾌적성이 극대화된다. 여기에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단지로 조성되고 전체 부지 중 37%는 조경 공간으로 꾸며진다.

통학버스대기 청정공간, 엘리베이터 청정 시스템,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저감수중 식재, 커뮤니티 창호 미세먼지 필터 설치, 커뮤니티 시설 주요 마감 친환경 자재 적용 등 미세먼지 저감 특화 설계가 대전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중 통학 버스대기 청정공간은 단지 내 버스정류장에 H13급 고성능 HEPA필터가 적용된 청정시스템이 들어서 여름과 겨울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내에 순환 산책로, 인체의 숲, 비오토피아정원 등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사통팔달 대전에서도 가장 교통여건이 훌륭한다는 게 신흥SK뷰의 또 다른 장점이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대동역과 신흥역이 가까워 역세권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 대전 중심 상권인 중앙로 인근과 대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대전역은 전국 철도망을 갖춰 광역교통망도 강점이다.

여기에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신흥유치원과 신흥초, 충남중, 대전여고가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대동천과 대전천이 단지와 가까워 쾌적한 숲세권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신흥SK뷰는 건본주택에서도 차별화를 제공한다. 건본주택에 태블릿PC 등을 통해 주택형의 평면과 시스템 등 상품 정보를 청약 수요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홀로그램존과 VR존에선 단지 소개와 특·장점, 세대 평면에 대한 영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신흥 3구역 철거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자재를 사회적기업과 함께 건본주택에 사용해 환경 건축 폐기물을 줄이고 옛 추억을 지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철거현장에서 수거한 창문, 가구 등을 재활용해 건본주택을 꾸렸고 이 중 일부 가구는 사회에 기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신흥SK뷰 건본주택은 대전 동구 충무로 259에 들어서며 청약 일정에 오는 30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31일 1순위 청약, 내달 1일 2순위 청약 접수 등이다.

☎042-282-1096

김현호 기자 kh0303@ggilbo.com



코스피 2070대 후퇴 코스피가 25일 이틀째 하락해 2070대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2포인트 내린 2074.4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37포인트 오른 2085.67에서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해 장중 한때는 2061.08까지 내렸다. 연합뉴스

승용차 교역, 수출 늘고 수입 줄었다

상반기 出 6.1% ↑ 入 19.6% ↓
친환경자동차 수출 증가 요인

올 상반기 승용차 수출이 주요국·친환경차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상반기, 2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은 198억 달러, 수입액은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6.1% 증가, 수입액은 19.6% 감소했다. 수출 대수는 12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수입대수는 14만 대로 11.5% 감소했다.

수출이 증가한 건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 확대와 함께 친환경 승용차 수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수출액(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독일 순으로 미국(23%), 캐나다(14.2%), 러시아(19.4%), 독일(5.9%), 영국(10.4%), 베트남(39.1%) 등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으나 호주(9.3%), 사우디(11.6%), 프랑스(3.5%), 이탈리아(13.6%) 등은 줄었다.

러시아, 베트남, 이라크는 대형, 중형 차량에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체 승용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25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이 넘는 39.6%가 증가했으며 미국(57.6%), 독일(36.2%), 프랑스(139.5%), 영국(60%), 네덜란드(62.9%) 등의 국가로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액(금액 기준)은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순으로 일본(24.7%), 스웨덴

(39.5%), 남아공(173.0%)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으나 독일(38.6%), 미국(4.5%), 영국(2%), 오스트리아(65.8%) 등에서 하락했다.

올 2분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했다. 올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05억 달러, 수입액은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9.3% 증가, 수입액은 19.1% 감소했다.

수출대수는 67만 대, 수입대수는 7만 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증가, 3.8% 감소를 보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금액기준)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독일 순으로 미국(31.7%), 캐나다(21.5%), 러시아(25.7%), 프랑스(18.5%), 베트남(33.9%), 이라크(83.3%)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강경의 기자 justice@ggilbo.com

사이언스 특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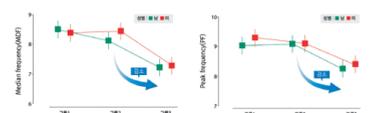
뇌파 측정으로 치매 위험군 선별 가능

한의한연-(주)인체항노화표준연
밴드형 전전두엽 측정기술 개발

국내연구진이 간단한 뇌파 측정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치매안심센터나 1차 의료기관에서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전전두엽 뇌파 측정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는 밴드형 전전두엽(이마) 뇌파 측정 기술만으로 치매 위험군 선별이 가능함을 밝힌 최초의 보고다. 기존 기술과 달리 특별한 준비 과정 없이도 치매 선별검사지(MMSE) 수준의 선별이 가능하다.

치매는 기대수명의 증대와 더불어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만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75만 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지연시키는 효과만 있고 완치는 어렵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치매센터에서 이용되는 설문지는 약 두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 문항이 단순해 발생하는 학습효과로 반복 검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MMSE 점수 별 뇌파 바이오파 측정값 비교 그래프. 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연구팀은 뇌파를 활용한 치매 진단 방법에 주목했다. 뇌파는 비침습적이고 학습효과가 없으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팀은 밴드 형태의 전전두엽 뇌파측정 기기를 활용해 이마에 부착된 전극에서 측정된 뇌파 신호를 분석해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치매 위험군을 선별해 낼 수 있음을 밝혔다. 약 5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휴지기 전전두엽 뇌파를 5분 간 측정해 분석한 결과 MMSE 점수를 예측하는 통계모형도 개발해 치매 선별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김종열 한의학원 원장은 “연구 결과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한의학원의 역할과 책임(R&R)에 부합하는 성과”라며 “건강한 고령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파급력 있는 성과 도출의 첫 단추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지난 18일 게재됐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백화점산책

가을·겨울 상품 최대 60% 할인

the Galleria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는 가을·겨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월상품전을 마련했다. 3층 '조셉'을 통해 최대 40~50%, '사바피에'를 통해 최대 60%, 4층 '세컨플레이어'에서 50~60% 할인을 각각 진행한다. 9층 LG전자, 삼성전자 매장에서는 에어컨 인기 상품을 내달 1일까지 열고 할인은 물론 사은품도 증정한다. 포라트, 오리고, 닥스칩, 삼미, 르크루제 등 브랜드가 참여한 스페셜 브랜드데이 행사는 28일까지 열린다.

바캉스 준비부터 이월 상품전까지

아이더 시계절 이월상품 대공개전 아래나·레노마 수영복 특집전

LOTTE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9층 특설매장에서 내달 1일까지 '아이더 시계절 이월상품 대공개전'을 선보인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주방&식기 특집' 행사를 열고 독일 유명 도자기 브랜드인 '벨레로이엔보호'를 30~50% 할인한다.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즐서기 상품전'을 마련해 롯데백화점 애플리케이션으로 쿠폰을 받으면 삼겹살, 토종닭, 갈치, 양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1층 패션잡화 매장에선 '바캉스 필수 아이템 특집전'을 연다. **백화점세이** 백화점세이는 본관 지하 1층 이벤트를 행사장에서 바캉스 시즌을 맞아 아래나스포츠와 레노마수영복의 여름 수영복 특집전, 세이투 2층 행사장에서선 '다이아핏' 신상품 여름상품 특집전을 개최한다. 세이투 5층 행사장에선 '다미힐피' 봄·여름 상품 시즌OFF 30~40% 특집전과 함께 '파파야' 여름상품 전품목 80~50% 특집전을 선보인다. 또 세이투 지하 1층 행사장에서선 '폴햄' 여름 인기 상품 최대 70% 특집전을 제안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